

일부 지역 고등학생들의 자위행위 실태조사

조은주*·김명희**·김주성***·김영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의 성적 관심과 성충동의 표출방식인 자위행위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발달 단계상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김기환, 1998). 자위행위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성행동의 하나로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며 과중한 학업부담이나 입시경쟁에서 비롯되는 불안의 표현일 수 있다. 김현실(2001)은 우리나라 청소년중 남학생의 88.2%, 여학생의 59.8%가 자위행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중의 하나가 성문제로서 16-20세의 고등학생중 남성의 경우 자위행위와 성충동에 관한 상담이 많았고 여성은 원치않는 임신이 가장 많았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97). 자위행위는 성적 대상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성행위의 일종이며 생리적으로 해로운 것이 아니다(안창선 & 이옥범, 1996). 즉 의학적으로 볼 때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한 정상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위행위에 대해 지나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거나 자위행위를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를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교육부, 1998).

선행연구에 의하면(교육부, 1996; 이은주, 1999; 김현실, 2001) 자위행위를 경험한 다수의 학생들이 자위행위의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횟수 및 자위행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신체적인 문제 등에 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성교육이 생물학적이고 지식적인데 그쳐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성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박성정, 1996).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편견없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위행위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위행위에 대한 성교육의 요구도, 자위행위 경험을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해서 일부 조사되었을 뿐이며(박성정, 1996; 이은주, 1999; 김현실, 2001) 자위행위시 수반되는 위생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위행위실태와 자위행위에 따른 위생관리, 신체 및 심리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자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성교육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을 위해 시도되었다.

* 부산대학교 대학원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 가톨릭상지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자위행위 경험과 그 실태를 조사하고 남녀학생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자위행위에 따른 위생관리, 신체 및 심리상태를 조사하고 남녀학생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II. 문헌 고찰

1. 자위행위

자위행위란 자기 손이나 손가락 또는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자극시켜 성적 쾌감을 높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자제할 수 없는 성욕과 성충동을 발산시키는 용인된 행위이다. 자위행위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성적 표현으로 건강한 성장의 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학령전기 아동의 자위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탐색과 자기자극에 몰두하는 놀이의 한 형태이며 청소년기의 자위행위는 자신의 성적 자아를 은밀하게 발견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신체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김현실, 2001).

청소년기의 자위행위는 2차 성징의 발현과 더불어 나타나는 성적 긴장을 경감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성적인 충동을 느끼면 신경에너지가 고조되어 성기는 저절로 발기하게 되며 자위행위를 시작한지 1-2분 이내에 성적 쾌감을 경험하게 된다. 고환에서 생성되는 정자는 첫 몽정을 경험한 후 3-4년뒤에 그 생산량이 최고도에 달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10대 후반의 자위행위빈도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Kinsey 등, 1953). 한국의 청소년중 남학생의 60-89%, 여학생의 13-23%가 자위행위의 경험이 있으며(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최초 자위행위경험은 2차 성징의 발현과 관련되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2년정도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현실, 2001) 그러나 자위행위빈도는 남학생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실, 2001; Kinsey 등, 1953).

남성의 성충동은 여성보다 강하며 억제하기 어렵다(이은주, 1999) 여성의 경우 감각적인 성자극만 주지 않는다면 성충동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지만 남성의 경우 시청각적인 성자극만으로도 쉽게 흥분하여 발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성충동이 일어날 때 청소년들은

성적 충동이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운동이나 지적, 창의적 활동으로 성충동을 승화시키거나 직접적인 자위행위를 통해 성충동을 해소시키게 된다. 특히 자위행위는 지나치지만 았다면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해가 되지 않는 자연적인 성적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육체적 성장에 비하여 그들의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고 성욕구 발산에 대한 훈련 미숙은 자위행위에 대한 가치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2. 자위행위에 대한 태도 및 관리

자위행위는 인간의 성행동들 중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행위로서 성충동을 방출시키는 자연스러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자위행위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쉽게 타인과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안창선 & 이옥범, 1996).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위행위는 그들의 보편적인 성적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Nelms & Mullins, 1982).

이는 청소년들이 자위행위가 정상적인 성행태의 일종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위행위가 남몰래 이루어지는 은밀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임에 대해 도덕적 타락감이나 죄책감, 성역할 정체성의 혼란 등의 양가적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60%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위행위에 대해 비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자위행위후 다수의 학생들이 죄의식이나 후회감을 느꼈고 자위행위시 경험하는 흥분이나 황홀감을 쫓아 스스로 자위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자책감과 수치감, 불안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이은주, 1999; 서울시교육청, 1998; 김현실, 2001).

자위행위가 놀라거나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종교적 규제는 청소년의 성관련 문제들을 부적절한 방향으로 왜곡시켜(Fleisher & Morrison, 1990) 성에 대한 지나친 억압이나 성적 쾌감의 탐닉과 같은 모순된 성행태 발현의 계기로서 작용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소야자(1990)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자위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2차 성징에 의한 불안으로 수면장애, 악몽, 집중력 감퇴, 위장장애 등의 신경성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위행위로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실제로 성교육내용으로 자위행위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지식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은주, 1999). 한국남(1992)은 자위행위가 유해하다는 속설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다만 과도한 마찰로 성기부위가 아프다든가 질이나 요도에 불결한 도구를 삽입할 때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경희(1999)는 자위행위가 너무 잦을 때 심신의 피로를 초래하여 학업이나 기타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자위행위시 성적 극치감을 위해 도구를 사용한 가학적 행동을 하는 경우 음낭이완, 대음순이나 음핵의 변형, 성기의 상처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들은 교과과정이나 사회단체에 의한 공식적인 성교육이 그들의 성지식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이은주, 1999; 김현실, 2001) 성관련 정보와 지식을 친구와 대중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으며(문인옥, 2000) 공개적인 성행위의 언급을 꺼리는 사회문화로 인해 이들이 접근가능한 성정보매체들은 비공식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들은 정확한 성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성적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선정적으로 과장된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정보에 노출되고 잘못된 성역할모델의 모방을 통한 성가치의 혼란에 빠져들게 한다.

특히 그릇된 성지식에 근거한 자위행위는 청결하지 못한 손이나 도구의 사용과 자위행위시의 성적 흥분때 따른 분비물관리에 대한 미숙 등의 부적절한 위생관리로 연결되어 2차적인 신체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위행위시 위생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정보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충동을 적정수준의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자위행위에 대한 지도가 요구되며 신체적, 심리적 안정과 안전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고등학생들의 자위행위 실태와 위생관리, 신체 및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B시의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각 2개교씩을 임의로 선정하고 해당 학교의 각 학년 2학급씩 총 24학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1998년 12월 1일부터 1999년 2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시 해당 학급의 교사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연구목적과 설문내용 및 기재요령 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였고 솔직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설문지에는 일련번호로 표시하여 개인신상에 대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처리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작성 직후 즉시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925명(남학생 444명, 여학생 48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기초로 작성한 후 일선에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 음란매체접촉, 음주, 흡연, 흡입제 경험 1문항, 자위행위실태 14문항, 자위행위에 따른 위생관리 6문항, 신체상태 12문항, 심리상태 12문항의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위행위에 따른 위생관리, 신체상태, 심리상태는 4점 척도로 처리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4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으로 배점하였으며 역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위생관리 및 신체, 심리상태가 좋을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Cronbach's α 는 .9702, .9351, .9685이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분석하였다.

- 1) 자위행위 경험은 실수와 백분율, χ^2 -test로 분석하고 자위행위 실태 및 양상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자위행위에 따른 위생관리, 신체 및 심리상태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고 남녀학생간의 차이를 t-tes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자위행위 경험과 실태

1) 자위행위 경험과 교육

<표 1-1>과 같이 자위행위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82.2%로 여학생의 6.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547.94$ $p=.000$) 자위행위에 대한 교육도 남학생이 25.0%로 여학생 15.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chi^2=12.11$ $p=.001$).

2) 자위행위 실태

<표 1-2>와 같이 자위행위를 최초로 경험한 시기는 남학생은 '중학교'때가 80.6%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때가 각각 34.5%로 나타났다. 자위행위의 빈도는 남학생은 '월 4회'가 30.1%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월 1회'가 34.5%로 가장 많았다.

자위행위시 소요시간은 남학생은 '5-10분 이내'가 29.3%, '5분 이내'22.2%로 대부분이 10분 이내였으나 '1시간 이상'인 경우도 3.8%였다. 여학생은 '5분 이내'가 82.8%로 가장 많았으나 '1시간 이상'인 경우도 10.3%였다. 자위행위의 인지경로는 남학생은 '우연히'

가 47.1%, '친구나 선배로부터'4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학생도 '우연히'가 79.3%로 가장 많았다.

자위행위의 동기는 남학생은 '호기심에서'가 45.8%, '성충동 때문에'가 42.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학생도 '성충동 때문에'가 55.2%, '호기심에서'31.0%로 나타났다. 본인의 자위행위 경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 남학생의 경우 '친구'가 36.7%로, 여학생은 '없다'가 69.0%로 가장 많았다. 또한 남학생의 8.2%와 여학생의 6.9%는 자위행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행위 직전 경험으로 남학생은 '음란매체접촉'이 61.4%로 가장 많았고 '흡연'이 2.7%였으며 여학생은 '음란매체접촉'이 48.3%로 가장 많았고 '흡연'이 6.9%로 나타났다. 자위행위 직후 경험으로 남녀 모두 '없다'가 54.3%, 58.6%로 가장 많았고 음란매체접촉도 18.4%, 24.1%로 자위행위 직전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흡연'은 14.0%, 17.2%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3) 자위행위 양상

<표 1-3>과 같이 남학생의 자위행위 양상은 '생식기를 직접 손으로 자극한다'가 70.1%로 가장 많았고 여

<표 1-1> 자위행위 경험과 교육

						(N=925)	
자위행위	구분	남학생 N(%)	여학생 N(%)	계 N(%)	χ^2	P	
경험	있다	365(82.2)	29(6.0)	394(42.6)	547.94	.000*	
	없다	79(17.8)	452(94.0)	531(57.4)			
교육	있다	111(25.0)	76(15.8)	187(20.2)	12.11	.001*	
	없다	333(75.0)	405(84.2)	738(79.8)			
계		444(100)	481(100)	925(100)			

<표 1-2> 자위행위 실태

					(N=394)	
특성	구분	남학생 N(%)	여학생 N(%)	계 N(%)		
첫경험 시기	초등학교	37(10.1)	10(34.5)	47(11.9)		
	중학교	294(80.6)	10(34.5)	304(77.2)		
	고등학교	34(9.3)	9(31.0)	43(10.9)		
빈도	월 1회	65(17.8)	10(34.5)	75(19.0)		
	월 2회	62(17.0)	5(17.2)	67(17.0)		
	월 3회	31(8.5)	4(13.8)	35(8.9)		
	월 4회	110(30.1)	7(24.1)	117(29.7)		
	월 5회	97(26.6)	3(10.3)	100(25.4)		
소요시간	5분 이내	81(22.2)	24(82.8)	205(52.0)		
	5-10분 이내	107(29.3)	2(6.9)	109(27.7)		
	1시간 이내	63(17.3)	0(0.0)	63(16.0)		
	1시간 이상	14(3.8)	3(10.3)	17(4.3)		
장소	집	350(95.9)	29(100.0)	379(96.2)		
	학교	9(2.5)	0(0.0)	9(2.3)		
	기타	6(1.6)	0(0.0)	6(1.5)		

<표 1-2> 자위행위 실태(계속)

(N=394)

특 성	구 분	남학생 N(%)	여학생 N(%)	계 N(%)
인지경로	우연히	172(47.1)	23(79.3)	195(49.5)
	친구나 선배	148(40.6)	0(0.0)	148(37.6)
	대중매체	38(10.4)	4(13.8)	42(10.7)
	정규 성교육	7(1.9)	2(6.9)	9(2.3)
동 기	성충동 때문에	156(42.7)	16(55.2)	172(43.7)
	현실을 잊고 싶어서	6(1.6)	0(0.0)	6(1.5)
	심심해서	36(9.9)	4(13.8)	40(10.2)
	호기심에서	167(45.8)	9(31.0)	176(44.7)
고민 여부	있다	30(8.2)	2(6.9)	32(8.1)
	없다	335(91.8)	27(93.1)	362(91.9)
이는 사람	없다	98(26.9)	20(69.0)	118(30.0)
	부모님	38(10.4)	1(3.5)	39(9.9)
	형제, 자매	18(4.9)	1(3.5)	19(4.8)
	친구	134(36.7)	0(0.0)	134(34.0)
	잘 모르겠다	77(21.0)	7(24.0)	84(21.3)
직전 경험	음란매체접촉	224(61.4)	14(48.3)	238(60.4)
	음주	0(0.0)	1(3.5)	1(0.3)
	흡연	10(2.7)	2(6.9)	12(3.0)
	흡입제	1(0.3)	1(3.5)	2(0.5)
	2가지 이상	50(13.7)	2(6.9)	52(13.2)
	없다	80(21.9)	9(31.0)	89(22.6)
직후 경험	음란매체접촉	67(18.4)	7(24.1)	74(18.8)
	음주	5(1.4)	0(0.0)	5(1.3)
	흡연	51(14.0)	5(17.2)	56(14.2)
	흡입제	0(0.0)	0(0.0)	0(0.0)
	2가지 이상	44(12.0)	0(0.0)	44(11.2)
	없다	198(54.3)	17(58.6)	215(54.6)
계	365(100)	29(100)	394(100)	

학생은 '웃입은 위로 생식기 부위를 자극한다'가 51.7%로 가장 많았으며 생식기에 강한 충격을 주면서 하는 남녀학생이 8.2%, 10.3%였고 남학생의 경우 5.8%가 '친구나 다른 사람이 있는데서', 3.3%가 '기구를 사용하며' 자위행위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위행위시 사용하는 기구의 종류는 콘돔, 로션 및 샴푸, 두루마리휴지 속통, 샤워기 등이었다.

2. 자위행위에 따른 위생관리, 신체 및 심리상태

1) 위생관리상태

위생관리 상태는 <표 2-1>과 같이 총 평균평점은 남학생이 2.79±.78로, 여학생 2.28±1.01보다 낮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위생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661, p=.001).

2) 신체상태

신체상태는 <표 2-2>와 같이 총 평균평점은 남학생이 3.27±1.01, 여학생이 3.33±.95로 남녀별 유의한

<표 1-3> 자위행위 양상

문 항	남학생(N=365)	여학생(N=29)	계(N=394)
	N(%)	N(%)	N(%)
웃입은 위로 생식기 부위를 자극한다	54(14.8)	15(51.7)	69(17.5)
생식기를 직접 손으로 자극한다	256(70.1)	10(34.5)	266(67.5)
생식기에 강한 충격을 주면서 한다	30(8.2)	3(10.3)	33(8.4)
음란매체를 보면서 한다	187(51.2)	5(17.2)	192(48.7)
성적 공상을 하면서 한다	195(53.4)	6(20.7)	201(51.0)
친구나 다른 사람이 있는데서 한다	21(5.8)	0(0.0)	21(5.3)
기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12(3.3)	0(0.0)	12(3.0)

차이는 없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자위행위 후 남학생은 기운이 없으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피로를 느낀다고 하였으며 여학생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심리상태

심리상태는 <표 2-3>과 같이 총 평균평점은 남학생 2.43±1.04, 여학생 2.29±1.17로 남녀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남녀학생 모두 자위행

<표 2-1> 위생관리 상태

문항	남학생(N=365)	여학생(N=29)	계(N=394)
	M±SD	M±SD	M±SD
자위행위를 하기전 손을 깨끗이 한다	2.62±.90	2.14±.95	2.58±.91
자위행위를 하기전 휴지를 준비한다	3.18±.84	2.14±1.06	3.10±.89
자위행위시 생식기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64±.94	2.17±1.00	2.61±.95
자위행위후 생식기를 씻는다	2.68±.98	2.24±1.06	2.65±1.00
자위행위후 속옷을 갈아입는다	2.48±.88	2.52±.99	2.48±.89
자위행위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3.13±.86	2.48±.89	3.06±.91
총 평균평점	2.79±.78	2.28±1.01	2.75±1.01
(t, p)	3.661	.001***	

<표 2-2> 신체상태

문항	남학생(N=365)	여학생(N=29)	계(N=394)
	M±SD	M±SD	M±SD
잠이 잘 왔다	2.66±.91	1.86±.92	2.60±.93
피로하였다	2.74±.97	3.45±.87	2.79±.98
기운이 없었다	2.60±1.00	3.24±.91	2.65±1.00
진땀이나 땀이 났다	2.98±.93	3.07±.96	2.99±.93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3.52±.72	3.59±.78	3.53±.73
현기증, 두통이 나타났다	3.62±.63	3.55±.87	3.61±.65
아랫배, 허리가 아팠다	3.46±.81	3.45±.83	3.46±.81
소변시 불편감이 있었다	3.16±.93	3.38±.94	3.17±.93
생식기 모양이 변화하였다	3.39±.82	3.55±.87	3.41±.82
생식기 부위 통증이 있었다	3.44±.77	3.59±.78	3.45±.77
생식기 출혈이 있었다	3.82±.43	3.66±.67	3.81±.45
생식기 분비물이 증가했다	3.81±.50	3.52±.83	3.79±.53
총 평균평점	3.27±1.01	3.33±.95	3.29±1.01
(t, p)	-.490	.628	

<표 2-3> 심리상태

문항	남학생(N=365)	여학생(N=29)	계(N=394)
	M±SD	M±SD	M±SD
마음이 우울, 불안, 초조했다	3.23±.81	3.14±.92	3.22±.82
기분이 좋았다	2.42±.97	1.97±1.09	2.39±.98
흥분되었다	2.20±.89	2.00±1.07	2.19±.94
내 몸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1.92±.89	1.72±.92	1.91±.89
도덕적 죄의식을 느꼈다	2.95±.98	2.76±1.15	2.94±1.00
막상 하고나니 후회되었다	2.47±1.05	2.62±1.18	2.48±1.06
부모나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웠다	2.58±.98	2.66±1.14	2.58±1.00
누군가와 속시원히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었다	3.07±.95	3.28±.84	3.08±.95
몸에 이상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	2.84±1.01	3.00±1.04	2.86±1.01
남(여)성답게 느껴졌다	2.21±.99	1.52±.83	2.15±.99
집중력이 좋아졌다	1.64±.74	1.52±.83	1.63±.75
학습의욕이 증가하였다	1.60±.75	1.34±.67	1.58±.75
총 평균평점	2.43±1.04	2.29±1.17	2.42±1.05
(t, p)	1.734	.084	

위후 학습의욕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 자위행위 경험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는데 이는 김수련(1997), 구현미(1997)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위행위 교육을 받은 경우는 남학생 25%, 여학생 15.8%에 지나지 않아 교육경험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위행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적다는 연구결과(최순희, 1990)와 청소년의 94.4%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그저 그렇다' 71.3%, '불만족' 23.2%로 보고한 연구(이찬, 1996)를 고려할 때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이 형식적이며 학생들의 성지식에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처음으로 자위행위를 한 시기가 남학생은 '중학교'때가 많았으며 여학생은 '초,중,고등학교'때 비슷한 비율로 자위행위를 최초로 경험하였다. 이는 김정일(1992)의 연구에서 자위행위의 최초 경험시기가 남녀고등학생 모두에서 '중학교'때가 가장 많고 한국성문화연구소(1997)의 조사에서도 여자고등학생의 경우 '중학교'때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으나 '초등학교'시기에 자위행위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위행위 빈도가 남학생의 경우 '월 4회', 여학생은 '월 1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기존의 선행연구보고들과 일치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1998; 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자위행위 시간은 남학생의 경우 '5-10'분, 여학생은 '5분 이내'가 가장 많아 자위행위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1시간 이상'에 걸쳐 자위행위를 한다고 응답한 남학생 3.8%와 여학생 10.3%에 대해서는 적절한 간호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위행위 인지경로도 '우연히' 또는 '친구나 선배'가 많았는데 이는 김정일(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위행위를 하는 남학생의 8.2%와 여학생의 6.9%만이 자위행위로 고민한다고 하였는데 김경화(1996)와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등의 보고에서 남학생들이 성충동과 자위행위로 가장 많이 고민한다고 보고한 사실과 박성정(1996)이 자위행위로 고민하는 남학생이 33.8%, 여학생이 4.0%라고 보고한 것에 비해 자위행위로 고민하는 학생이 적었던 것

로 나타났다.

자위행위 직전 경험으로 음란매체접촉이 많았던 것은 김태균(1998)의 연구에서 남자고등학생의 57%가 음란매체접촉 후 성충동 해소를 위해 자위행위를 하며 김경화(1996)의 학생들이 음란물 접촉 후 성충동과 자위행위문제로 많이 고민하게 된다는 연구보고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란매체 접촉경험과 성충동 및 성적 행동이 상호관련이 있으며 음란매체는 수용자에게 심리적 요소에 영향을 주어 성적 욕구와 성충동을 자극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성적 허용성에도 영향을 미쳐(김준호, 1994; 안창선 & 이옥범, 1996) 음란매체를 접촉한 학생은 성적 충동을 자위행위로 발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자위행위는 성의식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행위이므로 바람직한 태도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중학교 이전에 실질적인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위행위 양상에서 남학생은 생식기를 직접 손으로 자극하면서 성적 공상이나 음란매체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하여 여학생은 주로 옷입은 위로 생식기 부위를 자극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학생사이의 자위행위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위험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의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alamud와 Palmers(이연섭, 1987년에 인용됨)가 자극방법이 난폭하다든지 위험한 대용물의 사용, 쾌락의 노예가 되는 자위행위 등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자위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자위행위에 따른 위생관리상태는 남, 여학생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신체, 심리상태는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위생관리 점수가 낮은 것은 자위행위 양상에서 여학생은 옷입은 위로 생식기 부위를 자극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남학생보다 위생관리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자위행위 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기운부족과 피로감을 더 느끼며 남녀학생 모두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위행위가 신체적, 정서적 소진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위행위와 관련된 피로나 신체손상에 대한 지도가 요구된다.

또한 자위행위 후 느끼는 죄의식이나 후회감 등의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남녀 학생 모두 학습의욕의 저하와 집중력 감퇴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김소야자(1990)가 자위행위 후 집중력 감퇴 및 학습의욕저하가

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귀현 (1985)의 연구에서 '자위행위는 부끄러운 것이다'가 68.7%였으나 교육 후 47.3%로 줄어들어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듯이 예전까지 가장 문제가 되어오던 자위행위에 따른 죄의식이나 후회 등의 심리적 측면은 적절한 성교육을 통해 재조정됨으로써 자위행위에 따른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자위행위와 관련된 간 호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자위행위에 따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자위행위 후 기운부족과 피로감 및 수면장애가 없으며 학습의욕과 집중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위행위를 조절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고등학생의 자위행위 실태와 자위행위에 따른 위생관리, 신체 및 심리상태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자위행위관련 성교육자료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B시에 위치한 4개 고등학교 학생 925명을 대상으로 문헌고찰과 성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8년 12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χ^2 -test,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위행위경험은 남학생이(82.2%) 여학생(6.0%)보다 많았으며($\chi^2=547.94$, $p=.000$) 자위행위에 대한 교육은 받지 않은 경우가 여학생이(84.2%) 남학생(75.0%)보다 많았다($\chi^2=12.11$ $p=.001$).
2. 자위행위 실태에서 남학생은 '중학교(80.6%)' 여학생은 '초등학교(34.5%), 중학교(34.5%)'때 처음으로 자위행위를 한 경우가 많았으며 빈도는 남학생은 '월 4회'(30.1%)씩 '5~10분 이내'(29.3%), 여학생은 '월 1회'(34.5%)씩 '5분 이내'(82.8%) 동안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위행위로 고민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으며 자위행위 직전에 '음란매체 접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위행위 양상에서 남학생은 '생식기를 직접 손으로 자극'(70.1%)하는 반면에 여학생은 '옷입은 위로 생식기 부위를 자극'(51.7%)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생식기에 강한 충격을 주면서'(남8.2%, 여10.3%)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남학생 중에는 '친구나 다른 사람이 있는데서'(5.8%) 콘돔, 로션 및 샴푸, 두루마리휴지 속통, 샤워기 등의 '기구를 사용'(3.3%)하는 경우도 있었다.

4. 자위행위에 따른 위생관리는 남학생이 2.79로 여학생 2.28보다 잘 하였다($t=3.661$, $p=.001$).
5. 자위행위에 따른 신체상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었으나($t=-.490$, $p=.628$) 남학생은 피로하고 기운이 없으며, 여학생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자위행위에 따른 심리상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었으나($t=1.734$, $p=.084$) 남녀학생 모두 집중력이 감퇴되고 학습의욕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자위행위 경험 학생들 중 자위행위 양상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학생들을 심층면담하여 반복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한다.
2. 청소년을 위한 자위행위 관련 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8). 서울: 고등학교 교련.
- 구현미 (1997). 청소년의 성의식상의 문제와 대책방안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화 (1996).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환 (1998). 아동과 성문제,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회 학술대회 부산성폭력상담소.
- 김소야자 (1997).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수문사.
- 김수련 (1997).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일 (1992).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1994).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김현실 (2001). 청소년 자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정신간호학회지, 10(2), 137-147.
- 김태균 (1998). 컴퓨터 음란물이 청소년 학습과 성반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한가족계획협회 (1997). *청소년상담실 활동사례집 (제13집)*.

문인옥 (2000). 고등학생의 성문화. *한국학교보건교육 학회지*, 1(2), 1-16.

박성정 (1996). *청소년의 성에 관한 연구-이성교제, 성행동, 혼전성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유.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1998). '98 서울시 청소년 의식조사 청소년의 달 기념보고서.

안창선, 이옥범 역 (1996). *사춘기의 성과 행동*. 서울: 교육과학사.

이연섭 (1987). *학생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성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은주 (1999). 청소년의 성지식 요구. *아동간호학회지*, 5(2), 211-234.

이 찬 (1996). *한국 여성의 성행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순희 (1990).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연구 - 수원시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여고생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한국남 (1992). *엄마 난 왜 없어* 서울: 선우출판.

한국청소년 개발원 (1993). *청소년 이성교제실태에 관한 연구*.

Ensminger, M. E. (1990). Sexual Activity and Problem Behaviors among Black, Urb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1, 2032-2046.

Fleisher, D., Morrison, A. (1990). Masturbation mimicking abdominal pain or seizures in young girls. *Journal of Pediatrics*, 116, 810-814.

Kinsey, A. C. et al. (1953).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W.B.Saunders Co.

Levenson-Gingiess, P., Hamilton, R. (1989). Evaluation of Training Effects on Teature's Attitudes and Concerns Prior to Implementing a Human Sexuality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School Health*, 59(4), 156-160.

Nelms, B. C., Mullins, R. G. (1982). Growth

and development: A primary health care approach.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Rubinson, L., Baillie L. (1981). Planning School Based Sexuality Programs utilizing the PRECEDE model. *Journal of School Health*, 51, 282-287.

- Abstract -

Masturb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Cho, Eun Ju* · Kim, Myung Hee**

Kim, Ju Sung*** · Kim, Young Mi****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of masturb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Method : The subjects were 925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Masturbation experience, hygienic management and physical, psychological condition after masturbation were measure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December 1998 to February 1999.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χ^2 -test, t-test. Result :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sturbation experiences according to frequency($\chi^2=547.94$, $p=.000$), educational participation($\chi^2=12.11$ $p=.001$) and hygienic management($t=3.661$, $p=.001$) between boys and girls. 2) Contact of lewd mass media stimulated students to do masturbation and they used various methods such as stimulating genital area by using hand or tools, fantasizing about sex 3) Subjects reported that they experienced fatigue, sleeping disturbance,

*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Full 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decreasing concentration and learning desire after masturbation.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s that replicate studies are needed. The results are also useful in developing various sex education program.

Key words : Masturbation, Adolescence